

# 노인 일자리 사업 적극 나서

### 익산시, 15개 기관... 공익형 · 사회 서비스형 · 시장형 · 취업 알선형 4개 분야

익산시가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적극 나선다.

시는 올해 익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등 15개 기관이 함께한다고 9일 밝혔다. 투입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해 458억 원이며, 참여 인원은 전담 인력 79명을 포함해 모두 1만 1,129명이다.

사업유형별 인원은 △공익형 9,179명 △사회 서비스형 1,395명 △시장형 260명 △취업 알선형 210명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은 월 30시간 활동 기준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참여자의 경력과 역량이 활용되는 사회 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을 활동하고 75만 원을 받게 된다. 취업 알선형과 시장형은 사업단 규정에 따라 활동비가 차등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



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신규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경로당 문화 활성화 사업'을 도입한다. 해당 사업은 경로당이 단순한 문화 공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로당 문화 활성화 사업은 익산시 300여 개 경로당에서 △예쁜 손 내일아트 △발 건강 관리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 △평생학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은 고령화가 가속화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차별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5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모두 3,000만 원의 상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익산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영등동에 '나도'이로움 한 끼 밥상'을 열고 독거노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배달한다. 2022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던 환경정화식물 나누기 사업은 올해 다시 추진된다.

자녀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매입한 시니어특화직업장에서는 시니어 전문 교육 훈련과 일자리 연계, 특화 사업 등 익산민의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노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양찬모)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은 익산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도시관리공단 '맞손'

### 익산시, 직원 · 시민 정신건강 증진 업무 협력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양찬모)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은 익산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9일 업무 협약을 열고 익산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민과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우선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제공한다.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교육부터 생명 지킴이 교육,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연계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양찬모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841-4235)는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과 야간에는 위기 상담 전화(1577-0199)와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를 이용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저소득층 주거이전 돕는다

### 독거노인 · 심한 장애 가구 등

군산시는 높은 이사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의 전체 수급자 가구 12,686가구 중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총 5,749가구로 수급자 가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일반세대에 비해 주거 이주로 받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가구이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40가구에 최대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전입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

인, 동일 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이사비 견적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행정과 주민복지과(☎063-454-42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높은 물가 인상으로 평소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광관 기자

## 군산시 농기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 대야농협 신규 선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공모하며, 대야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국비50%, 시비50%)을 투입하게 된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농협에서 농촌과 도시의 유휴 근로 인력을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일선 및 중개하는 사업

으로 센터 운영비,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운송,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농번기철 단기간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도농인력중개 플랫폼, 농작

업 대행업무, 농번기 행정 유관기관 및 대학생들의 농촌일손돕기 등을 진행하여 농업 분야에 안정적인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채유관 소장은 "신규로 공모 선정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촌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력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광관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과태료 처분 사항 가짜 문자 주의 당부

익산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과태료 처분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시가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익산시 대표전화(1577-0072)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올 도시가스시설 설치지원 사업지역 접수

익산시가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난방비 경감을 위해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등 약 75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비용의 80% 한도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전북에너지서비스(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신청 후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5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